논어 7편 술이 30장 · 원문·풀이

陳司敗問：「昭公知禮乎？」孔子對曰：「知禮。」孔子退，揖巫馬期而進之，曰：「吾聞君子不黨，君子亦黨乎？君取於吳爲同姓，謂之吳孟子。君而知禮，孰不知禮？」巫馬期以告。子曰：「丘也幸，苟有過，人必知之。」

독음 · 진사패문 소공지례호 공자대왈 지례 공자퇴 읍무마기이진지 왈 오문군자부당 군자역당호 군취어오위동성 위지오맹자 군이지례 숙부지례 무마기이고 자왈 구야행 구유과 인필지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소공의 예를 두둔한 일을 지적받자 공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남들이 알려 주니 다행이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陳 늘어놓을 진 진 / 司 맡을 사 사 / 敗 헐어질 패 패 / 問 물을 문 문

昭 소명할 소 소 / 公 공변될 공 공 / 知 알 지 / 禮 예도 례 례

乎 어조사 호 / 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對 마주볼 대 대

曰 가로 왈 / 退 물러갈 퇴 퇴 / 揖 읍할 읍 읍 / 巫 무당 무 무

馬 말 마 마 / 期 기약할 기 기 / 而 말이을 이 / 進 나아갈 진 진

之 갈 지 / 吾 자기 오 오 / 聞 들을 문 문 / 君 임금 군

不 아닐 불 / 黨 무리 당 당 / 亦 또 역 / 取 거둘 취 취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吳 오나라 오 오 / 爲 할 위 / 同 같을 동 동

姓 일가 성 성 / 謂 고할 위 위 / 孟 맏 맹 맹 / 孰 누구 숙 숙

以 써 이 이 / 告 알릴 고 / 丘 언덕 구 구 / 也 어조사 야

幸 다행할 행 행 / 苟 진실로 구 구 / 有 있을 유 / 過 지날 과 과

人 사람 인 / 必 반드시 필 필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